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한 옛 여인들의 발자취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

글_한수경(홍성사 편집부)

지난 5월,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 편집을 시작할 무렵, 저자이신 이덕주 교수께서 책 앞 머리에 들어갈 ‘여는 글’ 원고를 보내 오셨는데, 그 글을 읽다가 그만 울컥 눈물이 나고 말았다. 교수님이 쓰신 바, 감사의 글에 등장하는 나는 ‘나태한 오늘의 신앙 회복에 활력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는 여성 편집인’ 으로 그려져 있었다. 늘 일정에 쫓겨 정신없이 하루하루 지내며 칭찬보다는 질책에, 감격보다는 반성에 길들여져 기죽어 지내던 내게 ‘사명을 갖고 일하는 여성 편집인’ 이라는 문구는 참으로 눈물겨운 칭찬이고 격려였다.

하지만 ‘타는 목마름에 샘물처럼 시원하던 그 격려’ 도 잠깐일 뿐, 어느새 나는 ‘일상의 무더진 마음으로’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을 무감동 속에서 읽고 또 읽고 하였다. 그렇게 교정을 하고 사진을 고르고 카피 문구를 쓰느라 정신없이 지내며 일을 끝낸 뒤, ‘저자 인터뷰’ 를 정리하기 위해 녹음되어 있던 교수님의 인터뷰를 듣다가 그만 또 한 번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서른다섯에 홀로 되어서 삼 남매를 눈물과 기도로 키우셨다는 교수님의 어머니 이야기 그리고 이 책을 쓸 무렵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이 책의 여인들의 자료를 뒤지는 가운데서 위로를 받으셨다는 교수님의 고백을 들으며, 그제야 나는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을 교정하던 때, 강철보다도 냉정하고 무더진 내 가슴속으로도, 끝내는 비집고 들어와 잔잔히 여운을 남기던 그 감동의 원인이 여기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은 이미 16년 전에 한 번 출간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쇄를 끝으로 절판되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 책을 찾는 독자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이제 오랜 시간 쌓여 있던 책의 먼지를 털어내고 십여 년간 심화된 연구의 깊이를 더한 뒤, 부족하고 거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한 조선 말·일제시대는 역사적으로 혼란한 때였다. 하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모험적이고도 감격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몸소 실천했으며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나아가 비운에 처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희생을 치렀는지 이 책은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다. 특별히 이 책에 소개된 인물들은 모두 무명의 여성들인데 유관순, 김활란, 최용신 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을 제외하고 무명의 여성들만 소개한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유명한 여성들은 무명의 여성들을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유명한 여성들의 배경에는 수없이 많은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무명의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유명인 중심으로만 역사를 쓰기보다, 이렇듯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복음에 자신을 맡겼던 무명의 여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이 끼친 수고와 헌신으로 오늘의 한국 교회가 발전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와 민족을 위해 이름도 빛도 없이 희생한 그분들의 자유와 해방의 정신만은 계속해서 기억하여, 우리도 그 발자취를 좇아야 할 것이다. **한수경**

《한국 교회 처음 여성들》
이덕주 지음 | 홍성사 | 302쪽 | 값 11,000원



4년에 걸쳐 완결된 <귀족 탐정 다아시 경> 시리즈 《나폴리 특급 살인》

글_임형욱(행복한책읽기 대표)


<귀족 탐정 다아시 경> 시리즈의 제3부인 《나폴리 특급 살인》이 2007년 8월 드디어 완간되었다. 제1부 《세르부르의 저주》가 '행복한책읽기 SF총서'로 출간된 게 2003년 8월이고, 제2부 《미술사가 너무 많다》는 2006년 1월에 출간되었으니 꼭 4년 만에 3부작 모두가 완간된 셈이다.

《나폴리 특급 살인》이 출간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 중 하나가 표지 디자인 문제. 총서다 보니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표지 디자인이 필요했다. 그런데 중후함을 강조한다고 바탕에 칸 검정색과 제목을 강조한다고 입힌 금박 글씨가 문제였다. 검정바탕과 금박 제목은 너무 쉽게 흠집이 생겼다. 그래서 표지 디자인을 바꾸어야 했는데, 문제는 바로 <귀족 탐정 다아시 경> 3부작이었다. 시리즈 1부와 나머지 2,3부의 표지 디자인을 바꿀 수는 없는 노릇.

결국 《미술사가 너무 많다》와 《나폴리 특급 살인》을 총서 9번과 10번에 배치하고 11권부터는 디자인을 바꾸었다. 그러나 바뀐 디자인으로 11권 《영원한 전쟁》이 출간되고 12권 《마일즈의 전쟁》이 출간되었건만 《나폴리 특급 살인》은 언제 출간될지 기약할 수가 없었다. 제목과는 달리 '완행'으로 달려온 《나폴리 특급 살인》은 편집자 여럿을 초죽음으로 몰아넣으며 4년 만에 겨우 완간되었다. 4년이란 시간을 인내로 기다려온 독자들에게 감사를 보낸다.

<귀족 탐정 다아시 경> 시리즈는 1960년대 SF계에서 가장 재기 넘치는 작가였던 랜달 개릿의 대표작이다. 사자왕 리처드가 십자군 전쟁에서 돌아온 직후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아서 영국과 프랑스를 통일한 '영불제국'을 세웠다는 전제 아래(이런 의미에서 대체역사소설), 아직 과학기술은 증기기관차와 가스등 정도의 수준밖에 이르지 못했지만 과학의 자리를 대신해 마법이 과학처럼 발달한 20세기를 무대로(이런 의미에서는 판타지소설), 밀실 살인을 비롯한 무수한 살인사건들을 추리해나가는 귀족 탐정 다아시 경과 범정 마술사 손 오 로클란의 활약을 그

리고 있다(이런 의미에서는 추리소설). 이 시리즈는 영불제국과 폴란드제국의 치열한 첩보전이 나타나기도 하고(이런 의미에서는 첩보물), 《요리장이 너무 많다》와 《오리엔트 특급 살인》 그리고 <나폴레옹 솔로> <핑크 팬더> <007 시리즈> 등 무수한 소설과 영화들에 대한 패러디 소설이기도 하다. 이 시리즈는 거의 모든 장르를 넘나들기도 하고, 그 자체로 거의 모든 장르의 장르소설이기도 하다.

《나폴리 특급 살인》은 시리즈의 완결편인 만큼 독자들에게 반가움과 섭섭함을 한꺼번에 주었다. 인터넷서점에 올라온 서평에서 한 독자는 아쉬운 마음을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다아시 경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 마치 한 사람과 이별을 하는 느낌이다. 작품의 깊이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허전하기만 하다. 안녕, 다아시 경. 안녕 미술사 손. 안녕 랜달 개릿. 그동안 여러분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폴리 특급 살인》

랜달 개릿 지음 | 김상훈 옮김 | 행복한책읽기 | 384쪽 | 값 11,000원



불멸의 베스트셀러, 교회에서 논술 공부하기!! 《논술? 성경에 있다!》

글_한혜경(도서출판 이채 대표)

“우리 너무 이채로운 것아네요?”

안 그래도 출판사 이름처럼 다채로운 책들이 목록에 넘쳐나는데, ‘종교’의 웃을 입을 책까지 내면 뭐라고 할까, 조직 내부에서도 수군수군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나름대로 구색을 갖춘다고는 하나, 1997년 창사 이후 지금까지 발간한 70여 종의 책들이 아직 서점가에 한 코너를 꾸미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구성원들의 취미가 각별해서이다. 그런 마당이니 《논술? 성경에 있다》이 책은 제목부터 우리에게 생똥맞은 고민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종교 분야까지 손댈 수 있을까?’

하지만 《논술? 성경에 있다》의 전면(前篇) 《논술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와 ‘논술’이라는 컨셉트로 연결고리를 갖는 데 무게 중심을 둔다면 그리 큰 모험도 아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내렸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내로라하는 일반 단행본 출판사에서조차 종교 분야의 책들에 비중 있는(?) 기획력을 쏟고 있으니 벤치마킹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숨은 욕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다’는 이 원고를 출간하기로 결정했다. 생각하기·읽기·말하기·듣기·쓰기 등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주장을 담은 이 책은 읽을수록 상당한 매력이 있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또 교양(학습)을 추구하는 독서가로서도 모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원고를 두 번쯤 읽을 때서부터 확신할 수 있었다.

‘여름 방학 전에 나와야 하는데 서둘러야겠군.’

머리는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눈과 마음은 《논술? 성경에 있다》에 소개된 참고문헌에 가서 박혀 꼼짝을 안했다. 원고를 알뜰하게 손질하면서도, 참고로 소개된 책들을 한 권씩 사서 읽었다. 참고문헌들을 읽을수록 ‘불멸의 베스트셀러’ 성경과 《논술? 성경에 있다》의 메시지가 점점 심오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웬 어쭙잖은 신앙고백이냐고 힐난 받을지 모르겠지만, 참고문헌 가운데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원전으로 재구성한 만화(생명의말씀사 간)는 우리 출판사 책이 아니지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논술 잘하는 사람이 성공한다》의 응용편으로, 전편이 ‘학교에서 논술 공부하기’였다면, 이번에 나온 책은 성경을 통해 ‘교회에서 논술 공부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혼신을 다한 기도 끝에 이 원고를 완성한 저자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는 것만으로 논술 공부는 충분하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200만 부 이상 팔리는 성경의 입문서로서 이 책이 자리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이제 진짜 논술 공부 학습서가 후속편으로 기다리고 있다. 방법론이라 할까, 앞의 두 권으로 교양을 쌓으신 분들에게 늦지 않게 선보일 예정이다. ☞



교양서에서 정직하게 '친절한 학술서' 로 편집방향 전환 《승자의 저주》

글_고하영(이음 편집부장)

최근 행동경제학이 금융시장과 증권시장 등 실물경제 영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행동경제학의 개척자라 할 만한 대표 주자(Richard H. Thaler)가 쓴 책을 번역·출간하면 의미도 있고 시장성도 없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부심과 기대감이 있었기에 처음부터 의욕이 앞섰다. 무엇보다도 행동경제학이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기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주류경제학에서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학에 심리학을 접목시키고 있다는 점, 이를 통해 때로는 인간이 비합리적이고 이타적일 수 있음을 경제학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흥미로웠다.

그런데 막상 1차 번역 원고를 받고 나서는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은 나에게 생소한 수식들이 간간이 눈에 띄었고, 무엇보다도 낯선 용어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요즘은 일반인들도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다소 전문적이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경제이론에서는 무임승차가 우월한 전략이지만 때로는 협조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가,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 때는 손해인데도 계속해서 현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내용들은 일반인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이미 월가에서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는, 매년 초, 매달 초, 공휴일 직전에는 수익률이 높게, 매주 월요일에는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는 캘린더 효과와 그 이유를 알아두면 좋을 듯했다. 그래서 1차 독자, 적극적인 독자로서의 편집자인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모두 표시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번역자의 수고로움은 더해갔다. 본문 레이아웃도 요즘 경제경영 교양서의 추세에 따라 두 가지 색으로 해줄 것을 디자이너에게 주문했다.

하지만 번역자가 부연 설명을 하고 용어 풀이를 해야 할 것이 계속 쌓이면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이 책의 주요 독자는 경제학을 공부하거나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일 텐데 번역자의 수고로움이 자칫 군더더기로 비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기 시작했던 것이다. 번역자의 생각도 나와 일치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꿨다. 아니, 독자층을 넓히겠다는 욕심을 버렸다. 정직하게 학술서로 만들기로 했다. 대신 친절한 학술서로 편집하기로 했다.

본문 디자인도 단색으로 해줄 것을 재주문 했다. 전공자들을 무시하는 듯한(?) 본문 속의 '웁긴이 주' 는 최소화하고, 대신 세부적인 논의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각 장에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웁긴이 해설' 을 새로 붙이고, 경제학과 통계학 용어에 대한 설명은 따로 정리했다.

사실 그동안 국내에 행동경제학이 전면적으로 소개된 적이 거의 없었기에 새롭게 용어를 우리말로 정리하고 해설하는 작업도 《승자의 저주》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제목도 원서의 제목인 'The Winner's Curse' 그대로를 따랐다. '승자, 저주' 라는 단어들만 우리말의 어감으로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승자의 저주' 가 행동경제학에서 다루고 있는 경제의 이상현상 중 가장 대표성을 띠는 것이기에 원서의 제목을 살려야 한다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

